



# 농가구조 및 성격을 알면 FTA가 보인다

-한·일 농업구조 및 농가성격-

■ 한국은 채소 및 과일류의 재배가 증가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증대 가능성을 높게 해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농업구조 및 농가 성격은 어떻게 다를까? <편집자주>

**일** 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한·일 FTA 체결을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이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농업과 비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적 측면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밖에 한·일 FTA는 동북아 역내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FTA와 다른 중요성을 갖게 될 것

이다.

한·일 FTA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하여는 이미 연구된 부분도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여기서는 한·일 농업구조, 농산물 교역구조, 경쟁력, 관세구조 등을 비교, 분석하고 한·일 FTA가 농업부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또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대한 시금석이 한·일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업부분의 협상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농업구조

농업구조는 나라마다 경제적 시

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의 속도 또한 다르다.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일 양국의 농산물 교역구조와 교역량도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한·일 양국의 농업구조를 비교하고 농업구조의 변화가 농산물 교역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농업구조란 농업의 생산물 구성과 생산주체의 구성을 지칭하며, 농업구조 변화란 생산물과 생산주체의 성격과 구성의 변화를 말한다. 농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구성의 변화, 노동력의 부문간 배분, 농지의 유동성 등이 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농업여건은 토지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절약적, 자본 집약적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재배업 가운데 곡물보다는 채소와 과실이 유리하고 축산업 가운데는 대가축 보다는 소가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작물재배면적과 가축사육두수로 본 한국의 농업구조는 이러한 패턴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개방이 가속화된 1995년 이후에는 농업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작물 재배는 곡물에서 채소와 과실로 전환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조건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있다. 식부면적은 1990~2002 기간에 241만 ha에서 202만 ha로 16% 감소하여 있지만 경지 이용률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곡물 재배면적은 1990년 167만 ha에서 2002년 130만 ha로 30%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채소류와 과실류 재배면적은 각각 7%와 2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재배면적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69%에서 2002년 64%로 감소한 반면, 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7%로,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8%로 각각 증가하였다.

곡물 가운데 특히 재배면적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은 맥류과 콩으로 50% 가까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UR 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에서 유일하게 예외를 인정받은 미곡의 재배면적은 1995년 이후 큰 변화가 없어 대조를 이룬다. 채소류 가운데 재배면적 증가가 두드러지는 품목은 최근 유리온실 등의 보급이 증가한 시설 채소와 양파 등이다.

과실류 재배면적 증가 현상은 사과를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배 재배면적은 1990년 9천 ha에서 2002년 2만 5천 ha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밖에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의 재배면적도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다른 과수에 비해 공급이 많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과의 재배면적은 1990년 4만 9천 ha에서 2002년 2만 6천 ha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채소와 과실류의 재배면적도 감소하여 재배업은 UR 이후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산업 한우 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와 소가축의 사육두수 증가 등 급속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한국의 주요 가축 사육두수는 2002년 1억 1,262만 두로 1990년에 비해 40%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육두수의 증가는 주로 돼지, 닭 등 소가축의 사육 증가에 기인한다.

돼지 사육두수는 1990~2002 기간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닭 사육 수도도 37%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우 사육두수는 1995년 260만 두에서 2002년 140만 두로 46%나 감소하였다. 젖소 사육두수는 50~55만 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1990~2002 기간에 8%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자원이 자본과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 있어서 대가축보다 소가축 사육이 유리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며, 젖소 사육두수는 증가하였으나 한우 사육두수가 급감한

것은 관세에 의한 시장개방이라는 충격은 동일하였으나 관세율의 차이와 상품의 교역 가능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농업 여건은 토지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형태로 한국과 비슷하다. 호당 평균 경지 면적은 한국이 1.4ha, 일본이 1.6ha이며,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영세농의 비중이 각각 62%와 58%에 달한다.

반면 자본 투입량은 많아 호당 경운기나 트랙터 보유대수는 한국이 0.83대, 일본이 1.0대이며, 농업취업자 1인당 자본투입액인 자본장비율은 한국이 8,500달러, 일본이 9,400달러로 중국(359달러)에 비해 20배 이상 높다.

일본 농업도 토지 절약적, 자본 집약적 농업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한국에 비해 경작면적 감소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작물 재배면적은 1990~2001 기간에 9% 감소하는데 그쳤다(한국은 16% 감소). 그러나 일본의 농작물 재배면적 감소는 곡물은 물론 채소와 과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특히 과실류 재배면적은 1990~2002 기간에 22.3% 감소하여 곡물 재배면적 감소율 20%와 채소 재배면적 감소율 16.5%를 앞질렀다.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휴경을 권장하고 있는 논을 중심

한국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변화

단위: 천 호

구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 ( '90-'02)
농가호수	1,767(100.0)	1,501	1,383	1,280(100.0)	-27.6
1.0ha이하	1,027(58.1)	865	819	777(60.7)	-24.3
1.0~3.0ha이하	672(38.0)	541	465	405(31.6)	-39.7
3.0ha이상	44(2.5)	70	85	78(6.1)	77.3
기타(경종외)	24(1.4)	25	14	20(1.6)	-16.7

일본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변화

단위: 천 호

구분	1990	1995	2000	2002	증가율, % ( '90-'02)
농가호수	3,834(100.0)	3,444	3,121	3,027(100.0)	-21.0
1.0 미만	1,762(46.0)	1,565	1,364	1,305(43.1)	-25.9
1.0~3.0	1,016(26.5)	892	781	747(24.7)	-26.5
3.0 이상	192(5.0)	195	193	196(6.5)	2.1
기타	864(22.5)	792	783	779(25.7)	-9.8

으로 사료작물 재배가 장려됨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100만 ha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곡물류 가운데 재배면적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품목은 보리와 콩으로 1990~2002 기간에 25%이상 감소하였다. 벼 재배면적은 1990년에 207만 ha로 작물 재배면적의 40%에 달하였으나 2002년에는 169만 ha(전체의 35%)로 감소하였다. 지난 10여년간 벼 재배면적은 40만 ha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채소류 가운데 재배면적 감소 현상이 현저한 품목은 근채류와 과채류이다. 토마토, 오이, 가지 등 과채류 재배면적은 25% 이상 감소하였다. 과실류 가운데는 감귤과 포도의 재배면적이 각각 24%와 17%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

을 나타냈다.

일본이 축산업 변화는 한국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축 사육두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1990~2002 기간에 4.4% 감소하였다. 그러나 육우 사육두수는 오히려 5% 증가하여 1990년 270만 두에서 2002년 284만 두가 되었다. 그러나 젓소, 돼지, 닭 등 기타 가축 사육두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돼지는 1,182만 두에서 879만 두로 26% 감소하였으며 젓소는 206만 두에서 173만두로 16% 감소하였다. 닭 사육두수도 3% 감소하였다. 한국이 돼지, 닭 등 소가축을 중심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일본은 소가축의 사육두수 감소가 대가축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농가성격

주어진 가격과 기술 조건아래서도 생산주체의 성격에 따라 생산성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생산주체의 규모, 소유권, 경영자의 연령 등 생산주체의 성격이 생산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요소(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유권에 따른 자작농, 소작농, 임차농 등의 구분은 최근의 미가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영농주체의 성격을 규모, 연령 그리고 영농형태(전업농 또는 겸업농 등)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의 농가당 경지면적은 1990년 1.19ha에서 2002년 1.45로 0.26ha(약 800평)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적인 규모화의 부진 속에서도 3ha이상의 대농 출현은 크게 증가하여 1990~2002 기간에 3ha 이상의 농가는 77%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3ha 이상의 대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6.1%로 증가하였다.

영세농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에 58%에서 61%로 증가하였으나, 중농은 38%에서 32%로 감소하여 영세농과 대농으로서의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농가 가운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의 비중은 1990~2002 기간에 60%에서

6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가 인구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38%로 크게 증가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청장년층 인력은 300만 명에서 125만 명으로 58%나 감소하여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35%로 낮아졌다. 농촌인구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90~2002 기간에 인구 감소율은 14세 이하 72%, 14~49세 58%, 50대 4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의 인구는 오히려 119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16% 증가하였다.

한국 농업은 전업농에 의한 규모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성증대 요인과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인구의 원활한 탈농과 소수 정예 농업 노동력의 확보가 구조조정 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호당 경지면적은 1990년 1.37ha에서 2002년 1.57로 0.2ha(약 600평) 증가하는데 그쳐 한국보다 규모화의 진전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3ha 이상의 대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1990~2002 기간의 증가율은 한국의 77%에 비해 매우 낮은 2.1%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와 같은 대농과 영세농으로의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영농의 규모화 측면에서는 한국이 유리하게 진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겸업농이 감소하고 전업농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이

고령 인구의  
원활한 탈농과  
소수정예 농업  
노동력의 확보가  
한국 농업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이다

이론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농가인구는 1990~2002 기간에 43% 감소하여 한국의 46%와 비슷한 감소율을 나타냈다. 인구 감소율은 14세 이하 56%, 15~49세 47%, 50대 47%, 60세 이상 26% 등이다.

한국과 비교해 차이가 나는 점은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38%와 37%로 비슷하나, 일본은 50대의 인구 비중이 13%로 한국의 16%에 비해 낮고 청장년층과 어린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중

합해 볼 때 농가인구구조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유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작물 재배면적과 가축 사육두수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의 교역증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업 내부에서 양국의 호혜적 산업 내 무역보다는 한국의 대일본 수출 증대에 따른 교역증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자급률이 매우 낮은 콩, 보리, 옥수수 등 곡물류의 교역증대 가능성은 낮으나 양국이 다같이 과잉생산 상태에 있는 쌀의 산업 내 교역 증가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채소와 과실류 재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들 품목의 재배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수출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 일본의 육우 사육두수 증가, 한국 쇠고기의 낮은 자급률 및 자급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대일본 수출증대 가능성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비해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일본의 생산 감소와 한국의 생산 증가 및 높은 자급률 등을 고려할 때 수출증대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영농 규모화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대일본 경쟁력 제고 요인이 될 전망이다. ●